

전남창의융합교육원, 메카트로닉스 활용 교원 연수 운영

‘메카트로닉스대회’ 대한 참여의식 고취하고자 추진

초·중등교원 50여 명 참여...2개 과정으로 운영

전남창의융합교육원(원장 김경미)이 전남 교원의 에듀테크(Edu-Tech)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8월 10~11일 '2020. 메카트로닉스 활용 교원연수'를 진행했다.

'전남교사들, 기계와 교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초·중등교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2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연수는 미래사회의 핵심개념인 로봇의 기본 원리를 익혀 그 원리를 융합적 사고과정을 통해 다양한 기계에 적용해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0년부터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정식 종목이 된 '메카트로닉스 대회'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연수교육과정은 과학상자 6호로 여러 모양의 고정된 기계를 만든 다음,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프로그램을 기계와 연동시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계를 통제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설계했다.

연수 강의를 맡은 양희관 감사(광주과학교 교사)는 메카트로닉스 이해도를 높여 학습에 흥미를 갖게 했으며, 이두이노를 통한 출력과 입력 센서의 활용 방법을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연수생들은 생소한 코딩 작업에 어색해했으나, 차츰 죽어있는 기계가 조금씩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호기심과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산출물 제작 실습' 시간에는 각자 원하는 모양의 기계를 만들어 컴퓨팅 작업을 통해 기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연수생들은 이를 통해 자판 위의 손가락 명령이 기계와 교감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김경미 원장은 "미래는 창의융합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면서 "학교교육은 이러한 흐름을 놓쳐서는 안되며, 우리 원은 전남 학생들이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연수들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석한 김 모 교사(전남과학교)는 "나만의 작품계획서를 마련해 내가 내린 명령 대로 움직이는 창작물을 만들어 작



동했을 때의 기쁨은 최고였다."며 "서로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기계 속에서 미미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연수와정이 많이 취소됐으나 이번 연수가 기계와

SW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미래형 콘텐츠 보급에 도움을 줬다."며 "전남의 교사들이 가르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메카트로닉스 창작물을 통해 기계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우리가 함께해요”

보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계자 권역별 연수 실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12일 관내 조리사, 조리원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위생·안전의식 확보, 그리고 직장 내 친절문화를 확

산 시키고자 '2020.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과 오후 2회에 나눠 실시했다.

이번연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도교육청 오정미 청렴윤리팀장의 '청렴 전남교육!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직장 내 친절문화 확산과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으며,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도교육청 급식교육팀 정선진 주무관의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위생수칙을 손 씻기에서부터 식재료 구

매·검수, 조리·배식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전 과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급식 현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더 나은 보성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교육지원청 백남근 교육장은 "항상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대 창업지원단 전남여수산학융합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창업지원단이 지난 5일 오후 2시 국제문화컨벤션관 3층 회의실에서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원장 박경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와 '메이커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최용석 창업지원단장, 김선영 창업교육센터장과 박경조 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정일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창작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해 창업과 시제품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메이커스페이스 인프라(장비 및 교육장 등) 공유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운영·기술정보 등 교류 협력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홍보 협력 등을 통

해 실질적인 메이킹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대학교 최용석 창업지원단장은 "우리대학 메이커스페이스 '화창마루'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메이커 문화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창의 인재 양성 및 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조 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은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근로자 평생학습 기반 조성, R&D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관은 순천대와의 협력을 통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해 3D프린팅 등 기업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교육청, '몸짱·마음짱·행복짱' 프로그램 성료

여름방학 특수교육대상자 여가활동 지원 위해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여름방학 특수교육대상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몸짱! 마음짱! 행복짱!' 프로그램을 12일 성료했다.

3~12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행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애학생 25명·학부모 10명 등 소규모로 운영됐다.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

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예술적 끼와 문화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림&밸런스워크' 과정 및 진로직업과 연계 가능한 '나도 바리스타!' 과정으로 구성했다.

학부모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생활 속 활용 가능한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토탈공예' 과정을 진행했고, 자녀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교육

특강'도 실시했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강영 과정은 "코로나19로 여가활동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높은 만족도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